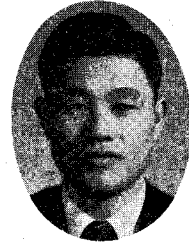


종계수입 15年史 (下)



설 동 섭

(농학박사·농촌진흥청연구조정관)

그당시 업계와 집행부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유와 당위성이 있었다고 하지만 종계의 국산화를 하려는 위원회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 협조해 나갔더라면 보다 빨리 종계수입의 재개와 순계도입이 허용되어 종계의 국산화가 촉진 될 수 있었다고 본다. 위원회에서는 1974년 부터의 종계수입제한으로 기히 개량육성된 국산종계를 보급하여 본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다.

산란계에 있어서 산란수는 그런대로 수입계 B급에 속할 정도로 능력을 발휘했으나 난중이 좋지 않았고, 거기다가 능력도 균일성이 없어서 사육하는 농가마다 각각 다른 평을 하고 있었다. 한편 육계는 한협 603호가 상당히 호평을 받을 정도로 능력이 괜찮은 편이었지만 회사 자체의 사정으로 수요를 충족시킬만큼 양산하지 못했고 또 종계를 확대생산하자 선발 강도가 낮아져서 능력에 역시 제일성이 없어 사육농가들이 만족하지 못했다. 이런결과 자연히 수입종계에 대한 동경이 더욱 가속화 되었고 몇마리 남지않은 수입종계

GPS가 생산한 PS는 금값이 되었다.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업계의 요구와 국산계 실태를 예의 분석하여 당국과 협의한 결과 1976년도에는 마침내 국산계개량을 위한 순계 2,000수 도입을 허가하게 되었다. 당초에는 기존 국내종계 개량을 보강하기 위한 육종소재로 순계 도입을 계획 했으나, 너무나 시일이 걸리고 또 수입된 순계로 국산종계 개량이 반드시 성공 한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외국에서 이미 품종작출에 성공한 유명종계 회사로 부터 1~2개 계통씩 순계도입을 기도 하고저 하였다. 그런데 이외에도 화란의 Euribrid종계회사와 이스라엘의 협동 종계장에서 기히 개발한 종계의 순계를 셋트로 공급 하겠다는 통보서를 첨부한 순계도입신청서를 천호와 한일종계장에서 각각 제출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외국의 유명종계회사인 Shaver, Babcock 등에도 순계 셋트수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시한부로 한국대리점회사에 교섭 하도록 권유 하였다.

그러나 이미 신청한 두 회사를 제외한 다른 종계장에서는 미국 및 캐나다에 있는 본사에 사장들이 직접가서 끈질긴 교섭을 벌였으나 결국 실패 하였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하는 수 없이 종계수입을 신청한 친호와 한일의 두 종계장에만 표 3과 같이 순계 도입을 허용하였다.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셋트순계에 대한 기대도 커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는 이 기회에 국내도입후 순계개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제특별 도입 수수를 2,000수에 맞추지 말고 좀더 충분한 수수를 허용 하자는 강력한 주장도 나왔으나 수수를 늘리면 두 종계장에서 국내시장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당국에서 허가한 2,000수에 국한 하기로 결말이 났다.

표 3. 순계수입상황(1976)

용도별	종 계 명	수입수수	수입선
채란계	Hisex White	395수	화 란
	Hisex Brown	230	화 란
	Yarkon	307	이스라엘
	Yarniv	307	이스라엘
육용계	Hybro	440	화 란
	Anak	418	이스라엘
계	6 종품	2,097	

그러나 그나마도 이 순계를 수입할때 국내 종계업자들이 반발이 있어서, 여러가지 제한을 가 하도록 조건을 제시했고, 이 조건을 수락하는 각서를 신청서류에 첨부시켰다. 그 조건이란 도입되는 순계는 종계개량에만 쓰고 여기서 증식된 실용계는 반드시 국산계명으로 판매해야 하며, 종계등록을 해야 하는 것 등 7~8가지에 달 하였다.

그렇지만 그동안 외국종계 수입을 중지했던 일은 사실상 셋트순계 도입을 허용 하므로 해서 그 의의가 없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 두 종계장에서 수입한 순계

가 국산계로 정착할때까지는 수입 종계로서 계속 종계를 증식보급 할 것이기 때문에 기타 품종에 대한 종계수입을 계속 제한한다면 실질적으로 두 회사에서 특혜를 주었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1977년도에는 PS에 한하여 육용계 49,000수, 채란계 57,000를 각각 수입추천 하였고 1978년도에 가서는 PS 및 GPS 할것 없이 수수 제한없이 종계수입을 전면 해제 하였다. 실제로 셋트로 들어온 순계가 어느정도 싹빙성이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진품이라면 수수제한을 하지 말았어야 우수종계를 확보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여 매우 애석하게 생각한다. 만약 그 순계가 진품이라면 두 종계장이 몇 년동안 계속 GPS를 수입하여 기존 순계의 혈연관계와 수수 확보만 보완해 주고 진심으로 우량국산종계로 육종 하고저 하는 정신만 가진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1978년도 이후 종계에 대한 시비는 이제 끝났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종계의 국산화에 성공하건 실패하건간에 종계를 어떤것을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지만 집착하고 있을때가 아니라라고 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종계의 능력은 이제 어느종계장의 것이나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다. 국산계나 수입계나 차이는 극히 근소한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양계의 산업화에 종계부문을 어떻게 연결시켜 산업체제를 갖추느냐 하는데 더 주력을 둘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3. 종계수입 제한의 공과

위에서 종계수입 제한에 대한 과거사를 대략 소개 했지만 종계가 1965년도에 처음으로 수입된 이래 어언간 15년의 역사를 갖게되어 그동안 무제한 수입, 수입제한, 수입중지, 셋트순계도입, 다시 수입제한 철폐등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양계산업 발전을 선도하여

왔으나, 오늘날 이러한 제한조치에 의한 공과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이견이 있을 줄 안다. 혹평을 하는분은 한국양계의 발전을 극히 저해한 조치였다고 하는가 하면, 양계 농가의 재력을 축적 시킬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우 유익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다고 듣고있다. 공과에 대한 어떤 이론도 생각하는 측면에 따라서, 또 자기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수는 없으나 필자는 다음과 같이 공에 대해서 요약하고 싶다.

첫째로 양계업자들이 제한조치를 통하여 상당한 재력을 축적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양계규모를 대폭 늘릴수 있었다. 만약 그동안 제한조치를 하지않고 계속 양계의 불황에 주기적으로 허덕이게 했으면 쓰러질 사람은 이미 정리가 되어 새로운 판도로 보다 더 발전 하였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양계업자 들로서는 지금까지 순수한 양계인들이 양계를 할 수 있었고 또 양계업을 통하여 그동안 꾸준히 노력한 사람은 약간의 재력을 축적하여 양계규모를 늘린다든지 다른 축산업에 비하여 비교적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그당시 종계에 대한 여러가지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그동안 치를 몇 차례의 불황으로 순수한 양계업자들은 모두 도산되어 지금쯤은 양계업계가 몇 사람의 재벌들의 손에 완전히 넘어 갔을것이 틀림없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양계경영의 현대화라는 견지에서 보면 양계발전은 다소 늦었지만 양계인은 기반을 잡았다는 말이된다.

둘째로 수입종계의 정비가 빨리되어 양계업자로 하여금 우수종계를 선택하도록 유도 하므로서 이익을 주었고, 아울러 종계의 국산화를 촉진케 하였다. 종계 수입의 제한 조치를 통해서 우량종계를 선택 하도록 유도한 결과 채란계는 Babcock, Hisex, Shaver, Nick

Chick 및 Warren 의 5 가지로 판도가 좁혀져서 적어도 품종에 관한한 이제는 양계업자들이 속아서 기르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과거 새롭고 신기한 이름으로 도입되는 종계에 많이 현혹되던 것을 점차 능력 위주로 또 특수한 사양조건에서만 좋은 능력을 내는 품종으로 부터 어떤 사양조건 하에서든지 잘 적응하여 능력을 고루 나타내는 품종으로 전환 하도록 유도 하는데 몇년이 걸리기는 했지만 성공한 것은 종계수급조절 위원회의 공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특히 국산종계 육성을 위한 종계수입중지조치는 몇년간 사상 미증유의 호경기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기히 개발된 유명종계의 순계를 셋트로 들여 오도록 촉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만약 그때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순계셋트 수입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영영 종계의 국산화는 하나의 공염불로 끝났을 것이다. 셋트로 도입된 순계들이 증식한 병아리들이 현재 국내시장에서 비교적 인기가 있는것 같아 크게 다행한 일이라 생각 되지만 이것을 어떻게 잘 육종계대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로 종계수입에 따라 선진외국의 양계 산업체계가 갑자기 도입되어 국내 양계산업 체계를 바꾸어 놓으므로 해서 오는 부작용을 수입제한 조치에 의하여 완화 하면서 서서히 적용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체제 도입이 되도록 지연조절 했다는 점에서 큰 공헌이 있다고 보겠다. 사실은 조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1973년의 유류파동과 사료가격 파동을 양계업계가 만약 겪었더라면 1971년의 사상 미증유의 지독한 불황충격에 이어 이때 살아 남았던 양계업자나 재기했던 마지막 카드를 잡은 양계업자들은 깨끗이 쓰러지고 선진국의 종계회사나 사료회사들이 국내 기업가와 합작형태로 새로운 종합양계체제 (Integration system) 를 도입해서 국내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한 예는 모합작 회사가 사료공장을 합작형태로 도입한 다음 종계와 연결 시키려고 종계 사업을 시작한 것은 그러한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몇차례의 종계 수입제한과 궁극에 가서는 수입금지조치를 취하므로써 그 의도를 꺾어 놓았던 것이다. 미국인 책임자가 우리 위원들에게 항의차 몇차례 방문하기도 하고 외교계통을 통하여 당국에 압력을 가하기도 하였으나 그때마다 위원회에서 완강히 버티고 나갔던 기억은 지금도 새롭다. 이 공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양계산업발전에 오히려 방해요소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적어도 미국에 종속하는 양계체제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한국형양계를 토착화 시키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만 있는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과오도 적지 않았다. 그 과오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몇해동안 너무 안이하게 종계로 돈을 벌다가 보니까 무모하게 규모 확장에만 급급하고 전혀 종계장의 시설개선에 신경을 쓰지 않아 깨닫지 못한 병아리를 공급하게 되므로써 많은 종계장들이 자멸하게 되었다. 특히 양계업이 70년도 중반 이후로 들어서면서 규모가 대형화 됨에 따라 일시에 많은 수수의 병아리가 요구되어 가는데 비하여 영세한 시설규모로 찻찻한 재미를 보던 소규모종계업자들이 살아 남을수 없게 되어 점차 도산 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종계장들은 대개 70년도 년도 초중반에 걸쳐 종계부족으로 병아리값이 가장 좋을때 돈을벌던 생각으로만 오늘날까지 계속 경영체제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오는 당연한 귀결 이지만 이에대한 책임의 일부는 역시 종계수입제한 조치에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종계수입 중지 기간동안 종계장들

간에 유행 되었던 털갈이에 의한 종계목이기가 습관이 되어 조금만 종계값이 비싸면 털갈이를 해서 계속 종계로 써먹기 때문에 여러가지 질병이 누적되어 여기서 나간 병아리들이 일선 양계업자에게 적지않은 피해를 준 점이다. 이것은 위생적인 견지에서 과히 옳지 못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양계 불황이 오면 지금도 많은 종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셋째로 종계수입제한으로 종계부족 상태가 계속되자 군소 종계장이 다시 난립하여 불량추, 저능력추등을 생산분양 하므로써 많은 양계업자들에게 손해를 주었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재미를 보았으나 사료효율과 능력이 낮아서 수입계에 비하여 재미가 덜 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바꾸어 양계업자들의 말을 빌리면 많은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볼때 적지않은 사료를 낭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효율이나 능력만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다소 국가적으로는 낭비가 있다해도 양계인들이 흑자경영을 할 수 있었다면 구태여 나쁘다고만 할 수가 없고 다만 적절한 수수의 수입계공급에 비하여 손해였다는 비교적 적인 의미밖에는 없는 것이므로 종계업자들이 말한것 처럼 결코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본다.

네째로 그동안 국산종계 육종으로 시종일관 하던 국내유일의 민간종계장이 국산종계 사업이 위축되는 듯한 사실은 썩 아까운 일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히 국내에서 순수하게 육종 한 것만이 국산종계가 아니므로 외국에서 계속 종계가 도입되는 한 종계의 국산화는 시일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언젠지 가능한 것이고 또 비록 두 종계장이 셋트로된 순계를 도입 했으므로 이것이 계대에 성공해 나가서 국산화가 된다면 이것 역시 국산종계임에는 틀림없으므로 국가전체적으로 볼때는 실 보다는 득이 더 큰 것이 아

닌가 생각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꾸준히 국산종계를 육종 하는데 외곶으로 심혈을 기울여 오신 박도현선생에게는 마음깊이 존경의 뜻을 표하고 싶다. 이것은 국산종계 육종의 개척이었고 누가 하던지 앞으로 어느날엔가는 그 뜻을 이어받아 종계의 국산화를 이루는 때가 반드시 올 것으로 믿는다.

4. 맺는말

현재 종계업계는 원하면 언제든지 외국종계를 무제한 수입 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 그러나 새로운 질병이 종계와 함께 도입 된다는 견지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종계가 국산화 되면 또 다시 방역과 외화 절약면에서 제한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지만 종계드입을 완전히 중지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종계가 국산화 되었다 해도 능력이 외국종계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우수한 것이 아닌 이상 계속 외국 종계와 비교 검토되어 어떤 형질의 개량이 보완 되어야 하는가를 늘 고려 하여야 되고, 이러기 위하여 필요한 육종소재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에서도 말한바 있지만 이제 부터는 어떤 종계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 보다도 자기가 가진 종계의 능력이 상위 랭킹에 있다고만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종합체제의 계열에 맞추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적어도 한 계열에 PS 확보 규모가 30만수 이상의 단위가 되어야 종합 체제가 될수 있으므로 PS농장들은 이 규모가 되도록 확대 하든지 몇개를 통합 하든지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대형화 되어가는 양계업에서 요구하는 병아리 수수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종계장의 시설들이 너무 낡아서 이미 현대화 된 시설을 가진 종

계장과는 경쟁이 될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개선이 무엇보다 급한 과제이다. 이제부터의 병아리 판매경쟁은 양산을 할 수 있는 규모와 시설 구비 여하에 좌우 된다고 보아야 하겠다. 작년부터 시작된 경제불황으로 PS 농장들은 모두 고단 하겠지만 그동안 사돈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시설의 현대화는 급히 서둘러야 하겠다.

현재 종계농장들의 가장 약점은 대부분 사료공장을 갖고있지 못한 점이다. 서울사료가 대규모 양계업자들의 합작으로 설립된 사례이기는 하지만 약하고 앞으로 종합체제를 도입할때 사료공장을 구비하지 않고는 종계사업을 계열화 하기 곤란 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이런 준비작업을 이제 부터라도 서서히 착수하지 않으면 재벌사료회사의 시너 노트를 하거나 이들에게 통채 먹히는 비운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불을 들여다 보는것 보다 더 확실하다. 군소사료 회사들의 예를 보아도 잘 알다시피 재벌회사가 한번 종계사업을 자기 사료회사와 계열화 하기만 하면 양계인들은 종계사업에 관한한 설자리가 없어질 것은 매우 분명한 일이다. 그래서 종계농장들은 공동출자해서 지역단위로 통합하여 종합체제로 들어 가야 할 것이며 자력으로 사료공장을 가질수 없는 종계장들은 기존사료공장과 계열화 해서 상호공존하는 관계로 조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정부에서는 종계장들의 통합과 계열화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지체없이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리고 깨끗한 병아리를 공급 할 수 있도록 종계장의 보호와 현대화를 위한 각종 조치는 물론 종계의 국산화를 위하여 특별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